

상습적인 성폭행 양심 의붓딸이 아버지 살해

남자친구와 공모

【충주=진재학 기자】지난 17일 발생한 충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 김영오(53)씨를 살해한 범인은 김씨의 의붓딸과 그녀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김씨를 살해한 김씨의 의붓딸 보은(21·고대 무용2)씨와 남자친구 김

진관(21·사회체육2)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붓아버지 김씨가 어릴때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데 양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뒤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검찰관사인 충주시 역전동 레이크빌라 20

1호로 남자친구 김씨를 끌어들여 아버지 김씨의 가슴을 식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의붓딸 김씨는 범행 당일 부엌에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고 남자친구 김씨에게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뒤 단순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장롱 속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꺼내가도록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김씨는 90년 11월 수원검찰청에서 충주지검 충주지청으로 발령받은 뒤 관사에서 혼자 생활해 왔으며 딸 김씨가 6살 때인 78년 김씨의 어머니와 재혼한 뒤 의붓딸 김씨를 12살 때부터 최근

까지 계속 성폭행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학합격 미끼 거액 채거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재수생 부모에게 잘 아는 교수를 통해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김현희(56·성동구 구의동 209-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0일 평소 알고지내던 박아무개(52·사업·강남구 신사동)씨를 만나 박씨의 재수생 딸을 7대 독문학과와 홍아무개 교수를 통해 시험만 치르면 합격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92.1.16

【第3種郵便物(가) 認可】

한밤 슈퍼 2인조강도 여주인 성폭행 돈뺏어

지난 13일 밤11시반경 서울陽川구新亭동 C슈퍼 마켓에 20대 2인조 강도가 들어 주인李모씨(35)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을 하고 15만원의 빼앗아 달아났다.

李씨에 따르면 이날 가게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20대 청년이 들어와 1천원 짜리 지폐를 내며 『깍1통을 달라』고 해 거스름돈을 꺼내려고 손글고를 여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비닐봉지로 손을 묶은 뒤 번갈아 성폭행하고 금고안에 있던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